

기독교 대학 신입생을 위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개발

- 교수커뮤니티: 기독교집단지성의 활용을 중심으로

김세광 (고신대학교)

I.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대학은 학생과 교수의 지적 소통, 관계적 소통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가치를 생산하는 곳이다.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성과 인성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 가치를 두어왔다. 대학의 가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지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에서 찾을 수 있다(김준영, 2014:6-7). 하지만 지식공동체를 구현 한다는 대학의 가치가 성취되고 있다고 단언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률에 따라 대학이 평가 받는 시대에 진정한 지식공동체가 구성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의 공동연구는 학문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상이한 전공들 간의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공동체적 지식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교수자들이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해야 한다. 집합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공이나 분과라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야 하며, 나아가 삶과 지식을 공유하고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봉준, 2003: 70). 교수자들의 지식공동체의 구성과 노력을 위해 A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수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신입생들부터 실시하는 교양필수 과목인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설계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교수커뮤니티를 발족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까지의 타율적인 삶에서 보다 자율적인 삶으로 변화하면서 삶의 질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이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들이 겪는 경험의 내용이 앞으로의 대학생 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하여, 자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인으로 승화시키고, 부정적 경험을 원만하게 극복하게 하는 일은 대학 신입생 개인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대학체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조직적 과제가 된다(오영재, 2006: 142). A대학교는 대학신입생들이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성장하며, BEST인재상¹⁾을 실현하기 위해 ‘고전 읽기와 창의적 글쓰기’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교과목의 개발과 설계를 위해 교수커뮤니티가 구성되었고, 2015년 1월~3월 교과목 개발을 위한 집중 연구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교수커뮤니티 활동과 실행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을 위한 글쓰기 교과과정’, ‘기독교 대학, 글쓰기’ 라는 주제로 선행연구 된 자료는 2015년 5월 10일 기준으로 찾기가 어렵다. ‘대학, 글쓰기’라는 주제로 연구된 자료가 190여건이라는

1) B-참된신앙인, E-창의적 전문인, S-섬김의 봉사인, T-진정한 세계인

결과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²⁾ 교육부의 2013년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 중점 지원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을 반영한 특성화된 다양한 학부 교육 선진 모델 창출,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육성을 통해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의 정착을 유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대학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창의적 융합시대에 걸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원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현교육기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 대학에서 대학의 교육역량을 위해 기초교양교과를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한 연구결과물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의 교양기초 과목의 개발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특히 교과목 개발에 있어 교수커뮤니티 등 집단지성의 활용을 모색한 연구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필요하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가치를 지닌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과 개발과 공동체적,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필수 과목으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강좌를 교수커뮤니티, 즉 지식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개발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집단이 협업하는 과정을 ‘집단지성’의 활동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커뮤니티가 지식공동체로서 ‘기독교 집단지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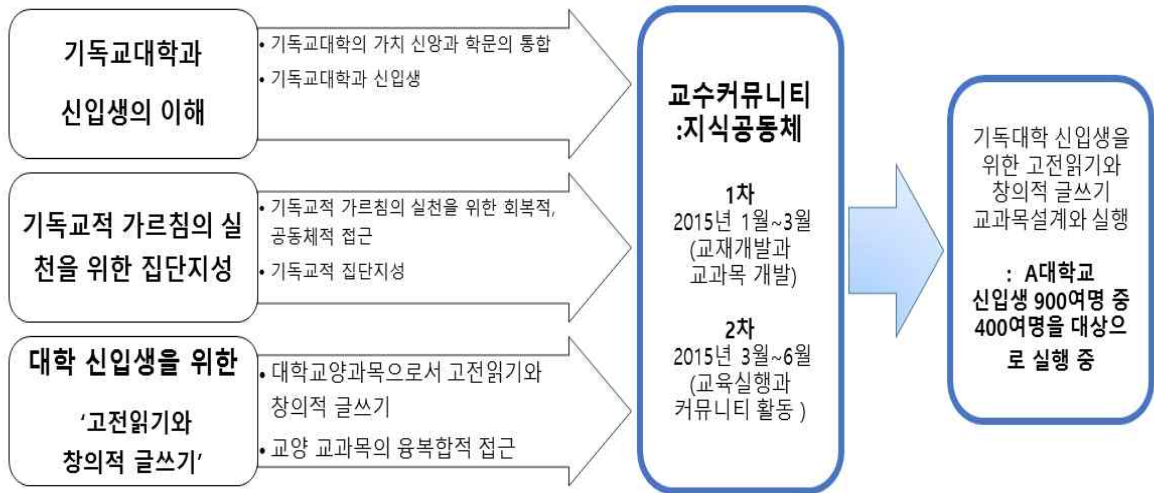
2) DB pia, KISS, e-article 국내 학술 DB 검색결과임(2015년 5월 10일 검색)

II. 연구의 구조와 방법

본 연구의 구조는 기독교대학인 A대학교에서 교양필수과목으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을 교수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교과목을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한 과정이다. 기독교대학과 신입생의 이해,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을 위한 집단지성, 대학 신입생을 위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A대학교 교수커뮤니티는 기독교적 지식공동체로서 2015년 1월~3월 교재개발과 교과목 설계를 위해 1차 커뮤니티활동을 실시하였다. 이후 교재가 가제본으로 완성되어 2015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차 커뮤니티 활동은 수업실행의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림1]을 참고하면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실행연구로서 A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필수과목인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가르치는 담당 교수들이 먼저 지식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과목을 설계하고, 가르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며 이를 통해 수정해 나가는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A기독교 대학의 하나의 사례로서 일반화되기 어렵고, 부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수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들의 관찰적 입장에서 기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피드백은 반영되지 않은 점과 아직 실행이 끝나지 않은 과정을 분석한 연구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림1] 기독교대학 신입생을 위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설계 연구의 구조와 방법

Ⅲ. 이론적 배경

1. 기독교대학과 신입생

1) 기독교 대학의 가치: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christian) 대학이 여타의 교육기관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교육의 이념과 목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설립의 주체가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규, 2014 :70). 이런 의미에서 김성수(1996)는 기독교 대학을 8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창조된 실재에 대한 관점과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독특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후원집단(이사회, 교회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세상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부정적(negative)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positive)이어야 한다. 일곱째,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 연구, 봉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여타영역, 예컨대, 농업, 기업, 예술, 초·중등학교, 노동, 정치, 매스 미디어, 교회생활 등에서의 기독교적 개혁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밝혔다.

8가지 개념을 정리해보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가치를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교육과정 구성하고, 삶의 영역으로 실천하는 통합적인 학문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수를 위한 교수개발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개발, 조직개발, 전문성개발 등의 일반적인 교수개발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독교대학의 교수개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이은실, 2012:49).

기독교대학이 일반 대학과 차별화 되고 그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지향해야 한다.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대학 다울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지배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은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참된 ‘영성의 옥토’인 성경과 그리스도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의 포스트모던 세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독교 대학에는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Teaching Christianly), 연구,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한다(Van Dyk, 1997: 김성수, 2003). 기독교 학교의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김성수, 2014: 274-276).

2) 기독교대학과 신입생

오영재(2006:156)의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한 것을 후회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인 차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인 간 상호작용 차원과 단위대학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수준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회한 경험이 없다는 학생과 응답하지 않은 학생을 합하면 약 30%수준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면, 대학 신입생들의 약 70% 정도가 대학입학을 후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각 대학마다 신입생들의 탈락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대학 신입생들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학업,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체계와 전공에 대한 적응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매우 높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대학 신입생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기독교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갖은 성공경험과 대리적 경험, 정서적 유대 및 언어적 설득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신입생 초기부터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 초기 사회기술, 인지된 소속감,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한혜실, 정정숙, 2010:167-168). 이를 반영한 기독교대학의 신입생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교양과목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다.

대학생활 초기에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밝고 건강한 자아개념의 형성과 미래의 주체적 삶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부정적 경험은 지적·사회적 부적응과 소외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건강한 학생문화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부정적인 경험은 대학신입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옮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을 그만 두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관리·지원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오영재, 2006: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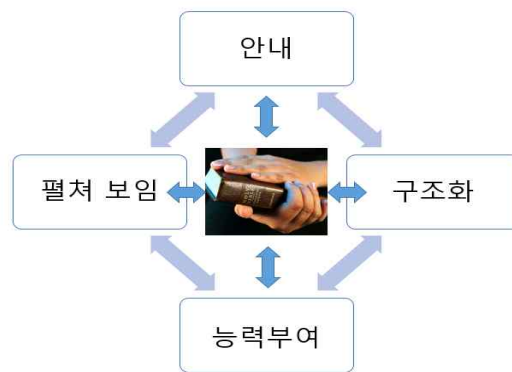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은 기독교 대학들이 안고 있는 외형적인 문제들-정체성 상실, 체플과 기독교과목의 비효율성, 재정난-등과 지식 체계의 혁명,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치혼란으로 기독교라는 신앙체계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이에 따른 가치의 전환 및 정신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불안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학업, 적성 및 취업, 이성문제, 경제문제 등은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의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대학신입생들에게 불안 및 자신감 저하 및 대인관계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야기도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의 초기 정착 및 적응을 도와야 한다(한혜실, 정정숙, 2010: 160).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갖고 대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인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을 위한 집단지성

1)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을 위한 회복적, 공동체적 접근

John Van Dyk(2000: 2003:138-153)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브루멜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먼저 ‘안내(guiding)의 방법들으로써 모델링, 동기유발, 훈육, 경건활동, 격려를 제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 구조화는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지칭하며, 교수전략, 학습의 구조화이다. 즉, 가르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뜻하며 구조화 또한 안내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다이크의 ‘펼쳐보임(unfolding)은 “학생들이 아직 알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펼쳐보임을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드러내기’(disclosing)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전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르침의 유형,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과정 내용을 열어가는 가르침의 유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펼쳐보임은 드러내는 활동을 포함하지만, 이 수준을 넘는 활동이며, 연관짓기(connectedness)의 특징을 가진다. 학습자가 배운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과, 자신의 경험과 문제에 연결하고 적용하여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 다이크는 ‘능력부여’(enabling)란 “섬김의 활동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능력부여는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학습자에 대한 교육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 바른 가르침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이며, 회복적, 공동체적 접근에 의해 가능하다. [그림1]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요소인 구조화, 펼쳐보임, 안내, 능력부여가 상호연관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각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수자의 효과적인 가르침, 즉 안내(guiding)를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구조화와 펼쳐보임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능력부여를 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Brummelen, 1988: 1996: 53-57).



[그림1]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

출처: Harro Van Brummelen(1988: 1996: 54; 2010: 8)

기독교적 가르침의 각 요소들은 각 각 그 의미와 방식이 다르지만,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성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특성과 각 요소를 실천 할 수 있는 하위 실천목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보통 교사의 위치는 학생보다 우위에 있다. 보다 권위를 갖고 있다. 권위는 학습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학습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는 회복적 정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성의 회복에 있다.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적 회복과 그들의 공간

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2) 기독교적 집단지성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적 능력에 의한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 소수의 우수한 개체나 전문가의 능력보다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의 통합된 지성이 올바른 결론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중지(衆智, 대중의 지혜), 집단지능, 협업지성, 공생적 지능이라고도 한다. 1910년대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곤충학자인 윌리엄 모턴 윌러가 개미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했다. 피터 러셀의 저작에서 사회학적 정의가 이뤄졌고(1983), 이후 사회학자 피에르 레비(Pierre Levy)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 개념을 정리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의 세계와의 불가해하고 환원적인 만남에 대해 피에르 레비는 오늘날 기업, 학교, 대학,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지식의 나무’라고 설명하면서, 집단지성에 대해 “그것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라고 정의한다.³⁾

집단지성은 보통 웹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네 미장원 고객들의 수다에서도, 학생들이 모인 커피 전문점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의 장에서도 보면 저작도구인 마인드맵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 최근 교육의 한 패러다임으로 확산되는 ‘액션러닝’도 집단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을 교육의 장에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박일우, 김우형, 박주영, 2012 :178).

기독교 대학 교수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문적, 도덕적, 신앙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제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는 기독교 교수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교수는 기독교 인재양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가르침과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서 자신의 학문분야에 신앙을 통합하는 능력과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수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독교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기능적인 교육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비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 문화 전반의 기독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적인 통합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기독교정신을 함양해야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교수학습활동은 기본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은 기독교정신을 기반으로 가르침을 실시하는 교수에게 있다(박은숙, 2013: 253-254). 배움은 개인에게 뿐 만 아니라 집단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집단이 건강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게 된다. 집단 그자체도 배우게 된다. 건강한 집단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아주 생산적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조직은 반드시 공동체여야 한다(Peck, 1997, 2004: 179-181).

3) 위키백과의 “집단지성”에 대한 개념과 역사를 중심으로 정리함. 집단지성의 예로는 위키피디아, 즉 위키백과가 있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는 누구나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열람사이트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종합적 지식이 한데 모아져 있어 거의 정확한 정보가 업로드 된다.

모든 조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듯, 집단지성을 창출하는 커뮤니티에도 자신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개방적인 작업방식은 핵심 그룹이 만들어낸 관계 맺기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결된 수많은 분권화된 혁신을 만들어 낸다. 과학의 발전이 소수의 선구자들로부터 시작된 것과 같이 성공적인 집단지성은 이러한 핵심 멤버를 필요로 한다. 소수의 핵심 멤버와 더불어 토론 중재자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소극적이지만 가끔은 집단지식의 창출에 ‘기여하는 멤버’들이 있다. 성공적인 집단지식 커뮤니티는 조직화된 군중이 각자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의 구체성에 있다. 핵심 멤버와 기여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적합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집단지성에는 명시적인 위계제도가 없지만 자율적 통제를 통해 규율을 유지해 간다. 다양한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며 자율규제를 할 때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지며 다중의 집단적 창의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박일우, 김우형, 박주영, 2012 : 179). 기독교 대학의 교수커뮤니티는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이 보다 정교화 된 창의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학 신입생을 위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1) 대학교양과목으로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핵심교육(Core Education)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양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가능한 평생교육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주인기, 2002; 2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이며, 자신을 수용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전인적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기독교 대학은 교양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교육이념은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기독교적 인격 형성에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지적이며 기능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인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이다(조용훈, 2004: 338).

기독교학교에서 교양교육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다양성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유무라고 하는 변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양교육은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요구되는 학문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되, 때로는 바른 요구를 창출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비신앙인과 신앙인이 함께 수업하게 되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교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박승인, 2014: 161).

대학 글쓰기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정신이 녹아 있는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신입생들은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 주요 언론의 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말들이 정답이라고 배웠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취직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학신입생들이 비판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비판적 정신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가르칠 때 강조해야 하는 것은 글쓰기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다(이승

은, 2014: 132-133). 글쓰기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은 활자화된 자신의 정서와 생각들이다.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시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강은주, 2002: 53).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글쓰기 과정은 창의적인 글을 생산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와 결과물을 창출한다. 개별적인 글쓰기와 더불어 팀별활동을 통해 토론하고 종합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혀 갈 수 있다(임춘택, 2010: 133).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이 자신의 내적 결정권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교육과 더불어 인문교양교육으로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인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통해 품격과 인격을 길러주는’ 인문교양교육은 대학에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는 대학신입생들, 특히 신앙과 학문의 융합적 개발이 필요한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내면적 성장과 앞으로 맞을 인생에 길을 열어 줄 것이다.

2) 교양 교과목의 융합적 접근

대학교 교양교육의 활성화는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의 부응, 사회정의와 공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전인적 사회 지도자 배출이라고 하는 오늘날 대학교의 사명과 연계되어 있다.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목은 서로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독교 내용 자체를 다루는 교과목과 위의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목으로 대별할 수 있다(박승인, 2014: 162).

융복합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융합과목을 시행하고자 한다. 융복합 교육의 목표는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창의인재, 즉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예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전적인 틀을 뛰어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다. 이런 교육 패러다임의 내용은 실용적 전문지식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으로 비판적, 종합적 그리고 실천적 능력 함양을 담을 수 있어야(이희용, :11). 이정기(2014:65)는 대학에서 융합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식이란 단순히 전달하고 받는 것이 아닌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독교 융복합 교양교육이 한 교수의 역량으로 부족할 경우, 팀티칭 같은 형식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대학교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박승인, 2014: 164).

IV. 교수커뮤니티 실행의 과정과 의미

1.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한 교수커뮤니티 구성

A 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독교대학 특성화를 위한 교수커뮤니티의 영역으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개발 과정에 참여한 교수진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개발’을 위한 교수커뮤니티 구성원

담당	이름	연령	소속	전공
연구 책임자	김 **	43세	기독교교육	교육학
팀원	박 **	60세	교양학부	국어국문
	김 **	34세	작업치료학과	환경수정, 보조공학
	조 **	43세	교양학부	리더십
	이 **	45세	교양학부	철학
	김 **	45세	국제어학부	중국학전공
	정 **	31세	재활학과	특수교육학
	김 **	47세	교양학부	신학

위 표를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위키백과에서 제기한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 통합 이라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과 핵심과 기여의 원칙, 관계 맺기의 원칙, 협업의 원칙, 창의성의 원칙이라는 찰스리트비트(2009: 113-127)의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에서 제시한 집단지성의 원칙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다양성이다. 본 교수커뮤니티는 다양한 성별, 나이, 직업, 취미, 가치관 등을 지닌 연구자들이 모인 것이다. 둘째, 독립성이다. 즉, 타인에게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동조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맡은 집필의 영역과 연구에 있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반영하였다. 셋째, 분산화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식은 매 번 정기적인 연구회의와 온라인 카페, SNS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넷째, 통합이다. 분산된 지식이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취하였지만 이 방식은 통합과 연계되어 있다. 즉, 통합을 위해 온라인카페와 SNS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2. 교재개발과 교과목 개발을 위한 실행

- 1차 커뮤니티 2015년 1월~3월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이정기(2014)의 연구에 제시된 융합교양 교과목 개발의 원칙(권성호·강경희, 2008: 이정기, 2014:66, 재인용·재구성함)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표. 3>과 같이 설계되었다.

기준	세부기준	세부기준에 따른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의 방향과 목적성
A대학교 교육목표	A대학교의 인재상 - 개혁주의 신앙인격과 교양의 소유자	- 본 교과목은 ‘개혁주의 신앙인격과 교양의 소유자’를 인재상으로 보고 있다.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는 기존의 읽기와 글쓰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앙인격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과 기술의 소유자 -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의 소유자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할 수 있는 자 	<p>실천적 글쓰기를 패러다임으로 본다. 로을 통해 회복적 패러다임을 공동체 가운데 실천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과 기술은 읽기와 글쓰기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음 - 전인적 읽기와 쓰기는 학습자들이 속한 각 공동체에서 읽고, 쓴 활동에 대한 능동적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개인,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의 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교양교과의 적합성	타 학문의 영역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인가?	기독교 세계관 + 비판적 사고 능력 + 의사소통능력 + 공동체의식 함양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접학문인 신학과 사회학, 갈등해결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문의 영역에 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최신의 학문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p>고전에 대한 이해는 인간적 기본 소양으로 평가 되고 있는 추세임</p> <p>“2016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인문정신소양 평가”에서 고전에 대한 이해를 평가의 방법으로 채택함</p> <p>글쓰기는 인간의 인지적 작용에 대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결과물임.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졸업 이후의 활동 뿐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며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임</p>
	전공 지식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고전읽기와 글쓰기는 신학, 교육학, 복지, 재할, 예술 등 모든 학문과 연계됨.
학문간 융합의 적절성	타 학문간 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기독교세계관 + 회복적가르침 + 비판적 사고 + 창의적 글쓰기 + 토론
	교과 내용이 깊이와 넓이가 적절한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교과 내용의 적절성을 제고함
	교과내용과 수업 방법이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는가?	경험학습 + 창의적교수법 + 학습공동체형성을 통한 목표달성 = 회복적 가르침
학습자 요구의 충족성	실용적인 교양지식이나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가?	성찰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자기계발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글쓰기 등을 통해 실용적인 교양지식과 기술을 함양함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함

	학습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지속적인 피드백과정을 통해 만족도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함
--	----------------------------------	-------------------------------------

<표. 3> 융합 교양 교과목 개발 원칙에 따른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출처: 융합교양 교과목 개발의 원칙(권성호·강경희, 2008: 이정기, 2014:66, 재인용·재구성함)

2. 교과목 설계를 위한 연구과정

연구명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개요	<p>고전이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고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고전이 창작된 시대 뿐 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 가능한 가치와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p> <p>본 연구는 고전을 읽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방법과 과정을 개발한다. 고전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공유하고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향이다.</p>		
수업적 용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신대학교 인재상과 방향성이 적합한 고전을 선정하여 바른 읽기 교육을 실시함 2. 책읽기와 쓰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창의적 교수법 실시함 3. 다양하고 실제적 글쓰기를 위한 역량 강화함 4. 창의적 인재의 기본 역량으로서의 읽기와 글쓰기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함 <p>■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역량과 학습역량 강화</p>		
활용목 표	<p>■ 대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직장 등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역량 강화</p> <p>■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책과 세상의 현상을 읽고 분석하며, 창의적 글쓰기를 통해 사고능력을 계발하고 진리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강화</p>		
회기별 모임계획			
회기	주제	내용	담당
1	독서와 글쓰기의 이해	-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개론 - 고전을 통한 글쓰기	김**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개발 개요	- 창의적 읽기, 글쓰기 수업을 위한 창의적 교수법	김**
2	성찰적 글쓰기	- 자기 발견과 치유의 글쓰기	김**
3	글쓰기 과정과 보고서 쓰기	- 레포트 작성법	정**
		- 보고서 작성법 - 글쓰기 과정 및 윤리	이**
4	비평적 글쓰기 1	- 독서감상문, 미디어평론	조**
5	비평적 글쓰기 2	- 발표문작성, 토론	김**
6	자기소개 글쓰기	- 이력서, 자기소개서	김**
7	논증적 글쓰기	- 칼럼쓰기 - 토론과 글쓰기	종합토론

<표. 4> 교과목 설계를 위한 연구과정

차시	내 용		
	고전읽기 필수도서	창의적 글쓰기 * 각 주차 별 주제별로 수업시간 및 과제로 글쓰기	담당 및 비교
1차시	고전1. 동양고전 『목민심서 읽기』 과제공지 각 차시 당 A4 반장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의 이해 -읽기와 쓰기의 패러다임 전환	- 김**
2차시		읽기의 이해와 글쓰기 기초	- 김** - 이**
3차시		글쓰기의 과정	- 김**
4차시		보고서 쓰기 (레포트, 보고서작성법)	- 정**
5차시		성찰적 글쓰기	- 김**
6차시		논증적 글쓰기	- 조**
7차시		비평적 글쓰기1 (독서감상문)	- 조**
8차시	중간과제 : 『목민심서』 전체 감상문 제출 및 독서퀴즈 출제		
9차시	고전2. 서양고전 『천로역정』 존 버니언 : 고전1 읽기 방식으로 진행함	비평적 글쓰기2 (토론과 글쓰기, 발표문)	- 김**
10차시		비평적 읽기 (신문, 미디어, 영화)	- 이**
11차시		자기소개 글쓰기(이력서, 자기소개서)	- 김**
12차시		칼럼쓰기 1.	- 김**
13차시		칼럼쓰기 2.	
14차시	포트폴리오 발표	- 김**	
15차시	기말고사 : 팀별 출제 문제 취합하여 문제은행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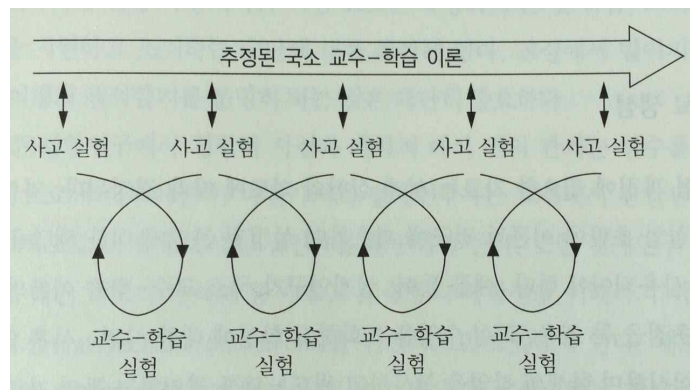
<표. 5> 2015년 1학기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강의 계획서

대학에서 독서교육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독서 대상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관심도와의 조절이 문제이다. 독서교육의 텍스트가 어려워 학생들에게 쉽진 않은 교과목으로 인식되어 고전에 대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주제적으로 접근하는 교과과정은 학생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독서교육 특히 고전 읽기는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심지어 열등감이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고전에 대한 거부감은 고전을 학력 엘리트의 아카데미즘과 정신주의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고전읽기 과목 자체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김현주, 2011 : 243). 이러한 이유로 고전 읽기 과목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책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A대학교의 교과 진행을 위한 도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을 고전읽기 교과목의 필수 도서로 선정하였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 두 책을 선정한 것은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각각의 책을 선정한 것이고, 무엇보다 기독교대학에 신입생들에게 적합하다는 교수커뮤니티의 회의과정을 통해 선정 되었다.

3. 집단지성(교수커뮤니티)의 활용의 실행과 의미 분석

교수커뮤니티는 지식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로서 지식공동체는 공통관심사, 동일한 기술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식과 우수 사례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협업플랫폼으로는 소셜 네트워킹, 개방형 대화방,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이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는 각기 다른 지리적 장소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준다(Eric Lesser 외, 2012: 3).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연구회의와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그룹의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실행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과정에서 발견한 교수커뮤니티의 성격은 지식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가르침은 교사 개인의 역량과 경험만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와 이론과 교육실행간의 지속적인 성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 활동과 기타 설계 요소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순환의 과정을 교수커뮤니티를 매개로 진행하였다. 지속적인 집단지성으로서 교수커뮤니티의 상호작용 과정과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실행해 가는 것이다(Akker 외, 2006/2013, 46-50).



[그림 2] 공동체적 가르침의 상호작용과 성찰의 관계
출처: Akker 외(2006/2013), 교육설계연구 : 51

교육적 실행은 교육실행-성찰- 적용의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성찰과 적용의 자료로 활용된 것은 정기적인 연구모임 회의록과 온라인 카페의 자료 공유물, 카카오톡 그룹의 대화 기록이다.

이 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가장 비중을 둔 자료는 교수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중간 성찰 보고서의 기록이다. 수업실행의 평가와 성찰을 위한 질문들 중에서 교과목 개발과 현재까지 진행된 수업 실행의 의미에 대한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교수커뮤니티는 수업진행과 수업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찰일지 답변	성찰분석
<p>교수커뮤니티는 좁게는 교수간의 소통이지만, 넓게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생각과 주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뜻깊은 모임이었다고 봅니다.</p> <p>수업면에서 그동안 전공지식만 가르쳐왔는데, 글읽기와 쓰기 수업을 통해 전공 외에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많이 공유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p> <p><김** / 국제어학부 / 중국학 전공></p>	<p>1. 교수간의 소통을 넘어 교수자 개인이 학생과의 소통을 열어줌</p> <p>전공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음</p>
<p>교수커뮤니티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선행 작업들이 수업진행에 많은 성찰을 주고, 수업진행이 교육목적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p> <p><이** / 교양학부/ 철학전공></p>	<p>2. 수업진행에 도움</p> <p>3. 교육목적에 맞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됨</p>
<p>많은 도움이 되었음.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 방법을 듣고 내 강의에 접목시켜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음.</p> <p><박** / 교양학부 / 국어국문전공 ></p>	<p>4. 다른 강의자의 강의법과 자신의 강의를 접목함</p>
<p>수업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됨 학과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반응과 피드백 방식에 대한 교수자들의 노하우를 배우게 됨</p> <p><정** / 재활학과 / 특수교육학></p>	<p>2. 수업의 방향과 목적세우기 수업준비에 도움</p> <p>4. 강의방법에 도움을 받음</p>
<p>보통 수업을 진행하면 교수자 자신의 과거 경험과 익숙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교수님들의 생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진행하게 되어 수업의 개선이 되었음</p> <p><김** / 기독교교육과 / 교육학전공></p>	<p>4. 수업개선에 도움</p>
<p>챕터별 담당 교수를 정해서 해당 내용의 강의안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어서 수업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교수님들과 좋은 점, 아쉬웠던 점을 상세히 공유하면서 다음 학기 교재를 수정하는데 좋은 의견들을 모을 수 있었다.</p> <p><김** / 작업치료학과 / 환경수정, 보조공학전공 ></p>	<p>2. 수업준비에 도움</p> <p>5. 다음 강좌를 위한 피드백 자료가 됨</p>

기독교 학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자간, 학제간, 복음운동이 공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학자들 상호간에 각 학문 분야별로 협업하고, 공동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보다 강화된 힘으로 이 시대의 지성과 맞설 수 있다. 여러 학문들 간 세분화되는 학제적 연구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전광식, 1995: 36). 다양하고 조화로운 연구의 과정을 통해 성찰분석을 한 결과 첫째, 수업에 있어 학생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었고, 둘째, 수업의 진행과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며, 셋째,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수업이 실시되었다고 분석된다. 넷째, 교수자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넘어 타자의 강의 방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식과 접목해서 더 나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개선점이 되었다. 다섯째, 다음 학기 강좌를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적용점을 얻었다.

2)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수업이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의 정서적, 신앙적, 사회적, 학문적 측면 등 전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찰일지내용	성찰분석
<p>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수업은 지식전달이나 습득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학습자의 느낀 소감과 생각을 글을 통해 표출하고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친구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강의실 속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신앙적으로 기독교세계관과 교육관에 입각하여 사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학습방법에서 토론중심, 협력중심, 공동체 중심의 학습방법을 습득해 나가는 가운데 공동체의식과 협동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략- 끝으로 전인성적 면에서 고전읽기와 책읽기는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적 전인성을 배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김** / 국제어학부 중국학 전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전달, 습득 2. 자존감 향상 3. 공동체적 학습 4. 기독교적 전인성 배양
<p>대학생활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의 고전읽기, 창의적 글쓰기수업은 무엇보다 학문함양의 기초적 자질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집니다. 책을 가까이하며, 규칙적으로 책을 대하여 피드백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는 학생 본인들이 가진 세계관과 저자의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충돌하며 좋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책읽기의 과정은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책을 대하고, 또 신앙적 개념을 사용하고 내면화시켜가는 소수의 학생들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읽기, 쓰기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전방위적인 삶의 영역에서 전인적인 성찰을 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문습득을 위한 기초적 자질 형성 2. 사고력 향상 3. 신앙과 학문의 통합 4. 전인적 성찰

<p>루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 교양학부/ 철학전공></p> <p>정서적으로는 소그룹 활동과 나눔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풍성한 나눔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음 / 기독교적 가치를 일반적인 읽기와 글쓰기 활동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다른 사람의 글쓰기 결과물 발표와 나눔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습득함/ 학문적으로는 글쓰기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기초 과정을 제공함 결국 전인적인 활동으로서 긍정적 영향을 끼침</p> <p><김** / 기독교교육과 / 교육학전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력, 표현력 개발 2. 기독교적 가치 표현 3. 다양성을 인식 4. 학문적 기초과정을 익힘 5. 전인적 활동으로 긍정적임
<p>읽기를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은 정서적인 안정과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또한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하며, 이러한 다양한 유익을 통하여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한다.</p> <p><김** / 교양학부 / 신학전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서적 안정과 사고력 배양 (기독교지성인) 2.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정리 3. 균형 잡힌 기독교인
<p>이 수업은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내면의 깊이를 성찰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큰 유익을 준다고 생각함. <박** / 교양학부 / 국어국문전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서적 안정감 2.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관점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함
<p>고전 문학 읽기를 통해 개인과 시대적 상황을 반추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시사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성경적 관점에서 고전문학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고, 비기독교인 학생에게도 모범이 됨 / 대학 수업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글쓰기, 보고서, 이력서 등과 같은 글쓰기 기술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음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을 쓰는 기쁨, 치유의 힘을 체험함</p> <p><정** / 재활학과 / 특수교육학전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기회 제공 2.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함 3. 대학 수업을 위한 기초 지식이 됨 4. 정서적 안정감 제공
<p>비기독교 학생들과 기독교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글을 피드백하면서 가치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낙태, 창조론, 동성애 등에 대해 논증시간이 있었고 각 주장의 근거를 찾으면서 질 높은 자료를 찾고 제시하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글로 도출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학생들 간의 유대감이 증진되었고, 서로의 글을 피드백 하면서 비난이 아닌 객관적 비판의 방법을 습득하고 있다.</p> <p><김** / 작업치료학과 / 환경수정, 보조공학전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독교적 비기독교적 관점의 차이 인식 2. 수준높은 논리성을 함양할 수 있음 3. 내면의 상처를 치유 4. 객관성 있는 비판적 관점을 습득함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수업이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의 정서적, 신앙적, 사회적, 학문적 측면 등 전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성찰적 질문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자존감의 형성, 공동체 학습, 높은 논리성을 함양할 수 있었고, 정신적 안정감과 기독교적 인식을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기독교적 전인성이 배양 되었다는 교수자들의 성찰은 신입생들의 전인성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내면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었다는 기록은 대학 글쓰기의 다른 국면을 보게 하였다.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겪었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손실된 가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나'라는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이승연, 2014: 134)는 것이 본 수업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학생들이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찰일지내용	성찰분석
고전읽기를 통해 현인들의 생각과 사상, 삶을 방식을 접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감을 높이며, 토론을 통해 자존감을 높입니다. <김** / 국제어학부 중국학 전공>	1. 고전읽기의 중요성인식 2. 생각정리 3. 자신감 4. 토론능력, 자신감 배양
책읽기를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자신의 전공과 거리가 멀어도 책읽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 교양학부/ 철학전공>	1. 독서능력향상 2. 자신감 3. 자기성찰
수업이 계속됨에 따라 처음에는 글을 읽는 것도 힘들어 하던 학생들이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영역에서의 진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시각과 사고를 할 수 있음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김** / 교양학부 / 신학전공>	1. 독서, 글쓰기흥미 2. 균형감있는 사고와 시각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됨. 남이 쓴 글을 비평해 봄으로써 자기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됨. <박** / 교양학부 / 국어국문전공 >	1. 독서습관 2. 쓰기능력향상
학생들이 글쓰기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글을 조금이라도 더 써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움 / 신입생들이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서로 피드백 해 주는 과정에서 잘 알지 못했던 학우의 생각을 알고, 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됨/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학생이 알게 되어 타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학생의 내적 성장을 발견하게 됨 <정** / 재활학과 / 특수교육학전공>	1. 글쓰기 자신감 2. 학습공동체의 형성 3. 잠재력 개발과 내적성장
글쓰기 과정의 치료적, 상담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무엇보다 성찰적 글쓰기 과정은 학생들이 가진 어린시절 상처와 분노, 열등감, 등 부정적 정서를 표출 할	1. 상담적 효과 경험 2. 상처와 직면 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

<p>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p> <p><김** / 기독교교육과 / 교육학전공 ></p>	
<p>매주 서로가 쓴 글을 피드백하면서 점점 글쓰기 수준이 성장하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체감하고 있다. 좋은 댓글만 쓰다가 비판의 댓글만 쓰게 하면서 객관적 비판의 방법을 습득하고 있다. 글을 쓴 학생도 처음에는 상대의 비판에 상처를 받았지만 점점 그것을 수용하고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략-</p> <p>논증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다수의 의견 또는 이유 없는 찬성,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각자의 의견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법규, 사전, 기사, 논문 등의 양질의 정보를 찾고 각 내용의 출처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의 신뢰도를 높였다. 각자의 의견을 논증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기독교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 각자의 의견 진술에 상당한 적극성을 보여주었고, 교수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면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 <김** / 작업치료학과 / 환경수정, 보조공학전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쓰기 수준 향상 2. 수준 높은 논증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의 영향력이 드러남 3. 기독교적 가치관의 전달 효과

학생들이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교수자의 관찰과 성찰은 본 교수커뮤니티 활동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공통적인 성장과 변화는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이다. 본 교과목의 목적이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의 개발이기에 본 과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감 향상, 사고력 개발, 학습공동체의 경험 등은 읽기와 쓰기라는 기초 학습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본 교과목이 신입생 개개인의 갈등이나 문제와 직면하게하고 내적성장과정치유를 경험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점이 분석을 통해 깨달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필수 과목인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과목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대학 내 교수커뮤니티를 활용하였다. 기독교집단지성으로서의 교수커뮤니티가 공동 개발한 글쓰기 수업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관찰된 의미를 성찰한 기록을 분석 것이다. 공동연구는 먼저 2014년 12월~2015년 3월까지 2015년 1학기에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교과목 분석과 교재가 개발되어 가제본 된 교재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5년 1학기 수업 과정 중에 오프라인 교수커뮤니티로 7회 모임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고 각자의 수업에 활용하였다.

기독교집단지성으로서 교수커뮤니티가 발견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실행의 의미는 먼저, 기독교 학문의 공동체성이 구체화 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이다. 교수자들 간의 협업과 상호작용이 결과물로 창출되고 실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신앙과 학문적 성장을 함께 수반해야 한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다. 이 같은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수업 준비를 위한 무리한 심경을 나눌 수 있으며, 교수자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수업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수업은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쟁적이며 입시 위주의 교육생태계에서 손상된 가치를 새롭게 함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글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본 교과가 지향하는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수업의 성취를 위한 읽기와 쓰기 능력의 개발과 더불어 자신감 향상, 사고력 개발, 학습공동체의 경험 기초 학습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시간이 된 것이다.

본 연구가 교수커뮤니티 즉, 기독교 집단지성의 상호작용은 기독교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로써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다양한 교과목과 비교과 과목에 적용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교수커뮤니티는 기독교집단지성으로서 가치 있는 활동이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동체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융복합적 교과 실행을 위한 새로운 실천적 패러다임으로 적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은주(2007), 기독교인의 성화의 삶을 위한 내적 치유 도구로서의 글쓰기 치료, 신앙과 학문, 12, 3, 49-82.
- 고봉준(2003),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지식공동체 등장, 오늘의 문예비평, 2003.5, 56-70.
- 김성수(1996), 기독교 대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 부산: 고신대학교, 1996,
- 김세광(2014), 대학재학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기반학습(PBL)과 기독교적 가르침에 관한 실험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3, 29-68.
- 김병숙·송혜령·김민정(2011),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Vol. 24, No. 2, 155-181
- 김준영(2014), 대학의 가치와 도전, 교양교육연구, vol. 184. 6-7.
- 김현주(2011),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대학교양교육, vol. 5, N o. 1, 229-261.
- 오영재(2006),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vol. 25, 141-164.
- 이상규 편(2014),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승은(2014), 대학 글쓰기에서의(학술적)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 대학작문, vol, 8. 109-142.
- 이정기(2014), 기독교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의 융합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37, 53-81.
- 이희용(2011), 지식융합 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과 기본모델, 교양논총. vol. 5. 5-26.
- 이은실(2010), 대학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신앙과 학문, 15, 2. 123-151.
- _____(2012).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 33-67
- 임춘택(2010), 자기 인식과 문제 해결로서의 창의적 글쓰기 지도- F.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글쓰기 자극제로 활용한 수업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47, 131-157.
- 조용훈(2004),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9. 337-354
- 박일우, 김우형, 박주영(2012), 교양교육에서 인터넷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 연구, Vol. 6, 2, 173~206.
- 박송인(2014), 기독교교양교육의 재정립, 대학과 선교, 27. 143-169.
- 방진하·곽덕주(2013), 교육의 인문성(人文性) 회복의 미래가치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vol. ,142, 109-141.
- 주인기(2002). 신입생과 교양교육. 대학교육, vol. 21-27.
- 한혜실, 정정숙(2010). 기독교 대학 신입생의 소그룹 활동이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불안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5, 4. 159-189.
- Amstutz, L. S. and Mullet, J. H.(2005). 이재영, 정용진 역 (2011).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서울: KAP.
- Harro Van Brummelen(1988).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기학연교육연구모임(1996).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IVP.
- _____(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이부형 역(2006). 『기독교적교육과정디딤돌』. 서울: IVP.
- _____(2010). 성경적 세계관과 교육. 김종훈·김중훈 역. 좋은교사연수원 자료집.

Eric Lesser, David Ransom, Rawn Shah, Bob Pulver(2011),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대중의 힘 활용, IBM 기업가치연구소.

Jan van den Akker · Koen Gravmeijer · Susan McKenney · Nien Nieveen(2006).Educational Design Research. 서순식·김민규 공역(2013). 『교육설계연구』 . 학지사.

John Van Dyk(2000), Letters to Lisa: Conversations with a Christian Teacher (Sioux Center, LA: Dordt Press, 김성수역(2003),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IVP.

집단지성 : 위키피아 (2015년 5월 1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EC%A7%91%EB%8B%A8_%EC%A7%80%EC%84%B1

논평 : 기독교 대학 신입생을 위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개발
- 교수커뮤니티: 기독교집단지성의 활용을 중심으로

류혜옥(고신대 교수)

최근 대학의 위기가 대두 되는 시기에 기독교대학의 위상이나 사회적 책임은 매우 크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현교육기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교육역량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교과 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대학의 교양기초 과목의 개발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가치를 지닌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과 개발과 공동체적,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사례의 하나로 제시된 본 연구는 앞으로 기독교대학에서의 활용가치가 크게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필수 과목으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강좌를 교수커뮤니티, 즉 지식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개발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교수집단이 협업하는 과정을 ‘집단지성’의 활동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커뮤니티가 지식공동체로서 ‘기독교 집단지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논찬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과목이 기존의 탐티칭과 교수커뮤니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 하고 있지 않다. 교과 하나에 전공이 다른 여러 명의 교수가 참여 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수업방식도 특이 사항이 없는 점이다.

둘째,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는 전공자가 기술적으로 티칭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공이 다른 교수가 매주 수업 들어가서 어떻게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된다. 앞에서 소개한 교수 커뮤니티는 8개의 전공자가 모여 있고 그중 고전 및 책읽기 글쓰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고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비평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여겨지며 주로 강의자는 1명이다. 교수커뮤니티가 수업을 통해 어떻게 녹아나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교양강좌라고 하나 학습자가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집단 지성 교수 커뮤니티가 온라인 회의 및 구상 하고 계획 실천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의의가 있으나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행하고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 수업과정이나 내용이 소개되고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개발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분석이 미약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자료공유와 수업활용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고전읽기와 창의적으로 글 쓰는 방식이 어떻게 기독교신앙과 학문에서의 통합이 일어나며 학생들 각자에게 가능 한 것인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연구목적에서 밝힌바와 같이 융복합적 교과 실행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에 있어 교과개발 과정 중 이므로 연구진행 및 발전을 위해 제안 할 것은,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제시해줄 것을 당부한다.

기독교대학이 일반 대학과 차별화 되고 그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을 확보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다.

특히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 대학에는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Teaching Christianly), 연구,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하고(김성수,2014: 274-276). 기독교

학교의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수를 위한 교수개발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며 기독교 대학의 사명인 것이다. 연구자는 기독교대학의 일원으로 위와 같은 교육이념과 신조에 충실하여 사명감을 갖고 연구한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논평을 마친다.